

삼표가 GREEN 세상

Vol.
63
2019 Summer • June • July • August



Theme Prism | 협업과 시너지 컬래버레이션의 3대 원칙 **Hot Issue** | 현장 인터뷰 정인철 삼표레일웨이 대표이사

Spotlight | 우리 부서 자랑 삼표시멘트 생산기획팀 혁신사무국

SUMMER

세로움의 기초가 되다

푸른 바다위 반짝이는 우리의 여름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만 같은 때다. 한편으로는 무더운 폭염이 그렇게 놓아두지도 않는다.
사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모처럼 책이나 실컷 읽어볼까, 버리고 버리던 열대의 섬으로 떠나볼까,
시간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던 옛 친구들 방문 행사를 실시해볼까,
당신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집안일이나 정원 손질하기 등을 해치울까...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특권 여름휴가. 짧다고 아쉬워 말자. 길다면 강렬하지도 않으리라.

CONTENTS



- | | |
|---|---|
| 04 Theme Prism ①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의 3가지 원칙 | 26 Focus ①
삼표그룹 골프 동호회 '제3회 삼표 PGA 필드대회' |
| 06 Theme Prism ②
듣고 묻고 칭찬하고 참고 배려하라 | 28 Focus ②
취업취업불링회 2019 상반기 정기 교류전 |
| 08 Hot Issue ①
삼표레일웨이(주) 2019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참가 | 30 Case Study
3D 프린팅 건축의 오늘과 미래 |
| 11 현장인터뷰
정인철 삼표레일웨이(주) 대표이사 | 34 Photo Event
삼표인의 '서머 리미티드 에디션' 신나는 여름휴가! |
| 12 Hot Issue ②
연천군 학생들과 함께한 '삼표와 GREEN 지구' | 36 삼표 네트워크
힐링의 삶을 선사한 '제2의 고향' 삼척 |
| 16 Spotlight
(주)삼표시멘트 혁신사무국 '품질 1등, 환경 1등, 안전 1등' | 38 언론에 비친 삼표 ① 건설경제신문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철거, 관창은가 |
| 22 삼표 +
'워라밸'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 워크 스마트 캠페인 | 40 언론에 비친 삼표 ② 서울경제
홍성원 (주)삼표산업 대표이사 인터뷰 |
| 24 Talk & Talk
13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지킨 삼표인 | 42 SP News |
| | 47 삼표인 소식, Quiz & Notice |

삼표가 GREEN 세상

Quarterly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19 Summer Vol. 63

계간 삼표그룹 매거진
2019년 여름호, 통권 63호
2019년 7월 발행
www.sampyo.co.kr

발행인
이오규

편집인
송석훈

기획·진행
김미미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02-6270-0768

제작
(주)가이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02-317-4921

NOT FOR SALE

분기별로 발행되는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주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Copyright©Sampyo All rights reserved.

브랜드 가치 높이는 '시너지 전략'은?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의 3가지 원칙

정확하게는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으로 불러야 한다. 대부분의 협업이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실행되기 때문이다. 의류, 가전, 식품,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를 중심으로 컬래버레이션이 활발해지면서 하나의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일명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열풍이 뜨겁다. '협업(協業)'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협력·공동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융합'이라는 해석도 나쁘지 않다. 컬래버레이션은 단순히 두 브랜드를 더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기대할 수 없었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컬래버레이션이 무조건 성공적이지 않다. 컬래버레이션을 성공시키려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무조건 화제가 돼야

던킨은 2019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스포츠 브랜드 써코니(Saucony)와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하고 도넛 박스에 운동화를 담아 판매했다. 일명 '던킨 운동화' 한정판 2000켤레는 곧 완판됐고, 지금은 온라인에서 원래보다 4배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던킨 운동화의 흥행 비결은 뭘까. '화제성'이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브랜드의 만남이 구매 욕구를 자극해 더 큰 화제가 됐다.

화제성은 최근 소비 트렌드 중 하나인 '펀슈머(Fun-Sumer)' 확산과 관련해 살



컬래버레이션은
기획 단계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어설피게 두 마리 토끼,
나아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하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펴보야 한다. 편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신조어인데, 가성비를 따지는 대신 재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다. 편슈머 트렌드 확산도 화제성 때문.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비자에게 화제가 되어야 한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려야 한다. 그래서 요즘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스토리를 구구절절 붙이기도 한다. 슬픈 사연을 알리기도 하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소비자를 끊임없이 자극하기도 한다. 모두 화제성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미지 높이기? 아니면 수익성 높이기?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다. 노리는 게 마케팅 인지, 브랜드 가치 상승인지, 아니면 매출 증대인지를 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컬래버레이션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확'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제 컬래

버레이션이 전 산업계에 광속으로 퍼지면서 슬금슬금 또 다른 목적이 결합된다.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협업이, 이제는 기존 브랜드 이미지의 변화 또는 판매량 증대에 따른 수익성 증대까지 목적이 확장될 수 있다.

이해가 간다. “컬래버레이션으로 돈 벌이를 하려 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마케팅 전문가도 있지만, 필자는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이런 원칙이 바뀌어도 된다는 쪽이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기획 단계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 어설픈 게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다가는 한 마라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보자. GS25 편의점의 대표 PB(어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인 제품)라면인 ‘오모리김치찌개라면’. 지난 2014년 GS25는 김치찌개로 유명한 (주)오모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오모리김치찌개라면을 출시해 대박을 터뜨렸다. 이 라면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오모리 쪽에서는 마케팅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브랜드 노출도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GS25는 매출 확대를 최우선에 두고 협업에 임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PB 트렌드에 따라 라면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바로 여기에 오모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한 쪽은 브랜드 마케팅, 다른 한 쪽은 매출(수익성)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 컬래버레이션이 이뤄졌고, 결과까지 만족스러운 사례로 완성됐다.

굴화위지안 돼야

세 번째 조건은 자사 고유의 브랜드 존재 의미와 강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컬

래버레이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을 보장하는 필승 전략이 아니다. 무리한 협업은 자사 브랜드의 장점을 망가뜨릴 수 있다. 제조 유통일괄형(SPA) 의류 브랜드 ‘H&M’의 단순 반복적인 컬래버레이션이 그 예다. H&M은 SPA 업계 최초로 2004년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가펠트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후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계속하는 동안 화제성은 점점 떨어졌다. 가장 최근이었던 겐조와의 컬래버레이션은 가격조차 SPA의 매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협업을 한다 해도 자사 브랜드 이미지의 강점과 존재 가치를 유지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증폭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가령 SPA 브랜드라면 감내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것이고,고가 의류라면 그걸 소비하는 핵심 계층이 존재한다. 그런데 아무리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영역을 넓힌다고 해도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결국 컬래버레이션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사 브랜드가 오랜 시간 구축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공고히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넛 회사가 신발 박스를 만드는 건 소비자의 일상에 늘 함께하겠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 구축하기 위함이지, 마라톤 하다가 도넛을 주문하게 만들려는 목적은 절대 아닌 것이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당분간 컬래버레이션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굴화위지(橘化為枳)라는 고사성어를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 남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귤을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탕자로 변한다고 했던가. 그럴 바엔 차라리 귤이라도 잘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5**

듣고 묻고 칭찬하고 참고 배려하라 함께하기 위한 대화의 법칙들

대화는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기에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진실하고 재치 있는 이야기로 유쾌하고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업무 효율과 조직 경쟁력을
키우는 '다섯 가지 대화의 덕목'을 소개한다.

Tip

1

마음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경청

상대의 말을 듣고(Hearing) 있지만, 귀 기울이지(Listening)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대의 말을 듣는 건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화의 목적이 주로 듣는 것이 아닌 말하는 것임을 꼬집는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바쁘다.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러한 본능을 누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야기가 옳든 그르든, 재미가 있든 없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에 담긴 의미에 대해 귀 기울여보자.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보자. 상대의 말에 반응하며 능동적인 듣기를 실천해보자.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돈독해질 것이며 호감과 신뢰가 뒤따를 것이다. 듣는 힘이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상대의 말을 듣는 건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Tip

2

질문은 관심과 애정 표현의 다른 이름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질문은 상대에게 그 자신만의 언어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의외로 대화 중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질문은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수단도 된다. 질문은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조차 열게 만든다. 예컨대 조언을 구하는 등의 '부드러운' 질문이 그러하다.

질문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상대를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그 이유, 에피소드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질문을 이어 나가야 한다. 질문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Tip 3

날마다 가까워지는 한마디, 칭찬의 마학

칭찬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익숙하지 않거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 칭찬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칭찬하는 당사자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하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준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기분 좋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칭찬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듣기 좋은 말, 즉 호호하고 추상적인 칭찬보다 상대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칭찬'이 필요하다. 내가 들어서 좋다고 상대방에게도 기분 좋은 말일 것이라는 오해를 과감히 깨뜨리자. 우선 상대의 장점을 찾아라. 또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잘한 점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칭찬은 거짓 없이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이 전해지도록 한다. 제대로 된 칭찬은 주변 인물들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이해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상대의 태도까지 변화시키며 결국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Tip 4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대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끔 범하는 실수가 있다. 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는 것. 그러다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 지나친 세부 묘사와 불필요한 사실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이는 대화의 연속을 위협한다. 대화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이해조차 힘들게 할 때도 있다.

대화를 통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려면 꼭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모든 대화가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는 없다. 특히 일상 대화는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지기 어려운 일이다. 대화가 가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탐닉하는 대신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가진 보물과 상대방이 가진 보물을 나누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의 상당 부분을 끼어 무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Tip 5

공감과 배려는 대화의 자양분

주위에 늘 사람이 따르는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대화법도 분명 다르다. 그들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솔직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동의와 지원을 이끈다.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상대와 공감하고 상대의 마음을 울린다. '공감'은 나는 당신의 희로애락을 함께한다고 말하는 능력이며 '배려'란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려는 태도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평화롭게 살려면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고, 보는 것을 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함께하기 위한 최상의 대화는 공감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5**

삼표레일웨이(주) 2019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참가 세계에 떨친 최고의 철도 기술

철도는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를 이끈 핵심 교통수단이다. 1899년 제물포~노량진 노선 운영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한 한국 철도는 지난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북 화해 무드 속에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대동맥 철도는 오늘도 사통팔달 질주하고 있다.



삼표레일웨이의 위상

2019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19)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산업전에는 국내 유일 철도궤도 종합 전문기업인 삼표레일웨이를 비롯해 23개국 165개 업체가 939개의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대형 독립 부스를 설치했다. 한국형 분기기 부품, PST 패널(모형), HF 침목(모형), 직결식 체결장치(모형), 고속 분기기(모형)를 선보이며 철도 관련 바이어를 비롯한 많은 관람객에게 우수한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표레일웨이는 궤도 분야 자재 및 시공,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와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PSTS, Precast Slab Track System), 레일 체결장치 등을 국산화해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다.

대형 레일 연마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지하철, 경전철 등 궤도 시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실적을 자랑하는 삼표레일웨이는 전라선 BTL 유지보수 사업을 이끄는 등 국내 궤도 유지보수 사업을 선도한다. 국내 최고 성능의 레일 연마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레일 연마의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열차 운행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의 주력 시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 경영은 오늘날의 삼표레일웨이를 만드는 기반이 됐다. 2001년 설



립한 철도기술연구소에는 최고의 궤도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곳에서는 고속철도 및 국철용 분기기와 체결장치 등 철도궤도 분야 관련 용품의 개발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9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기기 생산공장을 설립한 삼표레일웨이는 철도궤도 분야의 핵심인 분기기와 각종 궤도 용품의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10년이 넘는 노력과 투자로 상용화의 결실을 맺은 PSTS는 친환경성, 시공성, 경제성,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철도궤도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됐다. 삼표레일웨이는 현재 최고의 자체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기와 신축 이음매 등을 생산하는 충북 오송공장과 PSTS 생산을 맡고 있는 제천공장 등을 가동 중이다.

획기적인 기술과 제품군

삼표레일웨이가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에서 선보인 한국형 분기기 부품, PST 패널, HF 침목, 직결식 체결장치, 고속 분기기는 철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제품이다.

분기기는 열차의 진로를 다른 선로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선로에서 가장 중요한 궤도 및 신호 부분의 종합 구조물이다.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정밀 설계 및 제작 노하우가 필수인 분야다. 삼표레일웨이는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궤도용 고속 분기기의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2009년 지식경제부 세계일류 상품 인증'과 '2010년 국토해양부 교통신기술 지정'의 성과를 이뤘다. 2010년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성능 검증도 받았다. 이처럼 국산 기술로 자갈도상용 고속 분기기를 전용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형 고속 분기기는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를 위한 국산화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제품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됐다. 특수 레일인 텅레일 등 주요 소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도 있었다. 한 국형 고속 분기기로 수입 의존도를 탈피함과

동시에 동적상태 궤간 최적화 기술(KGO) 선형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과 내구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 향상을 한번에 이루어냈다.

PST 패널도 삼표레일웨이가 자랑하는 제품 중 하나다. PSTS는 공장에서 제작된 슬래브 패널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도상의 균일한 품질 확보가 어려운 현장 타설 콘크리트 궤도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고 품질 확보와 공기 단축은 물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 소재의 활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투입 인원 최소화, 공사 중 매연 감축 등 작업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일반 철도용 PST 패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손잡고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했고, 고속철도용은 삼표레일웨이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PSTS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해 중앙선 아산~판대 구간, 동해남부선 수영~기장 구간, 신경주~포항 구간,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기타 포항~영덕, 원주~강릉, 안주~제천 구간 등에 적용됐다.

HF(Half Frame) 침목도 시선을 모았다. 침목은 레일을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고 지지하며, 레일과 레일 사이의 간격인 궤간을 정확히 유지하고 열차의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존 일반 침목은 직하부에 열차 하중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열차가 고속화되고 통행량이 많아지는 경우 도상 파괴 속도 또한 빨라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표레일웨이는 레일 좌면부 폭을 증대시켜 하중 분산 효과로 자갈과 접촉 압력을 줄인 HF 침목을 개발했다.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지원 연구과제 추진으로

60kg 레일용은 형식승인이 완료됐고, 60T 용의 경우 형식승인이 진행 중이다.

직결식 체결장치도 많은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레일을 침목 등에 결속시키는 장치로, 레일의 위치를 바르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레일에 가해지는 하중과 진동에 견뎌야 한다. 이 장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구간(木) 침목 분기기의 부식으로 인해 주행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콘크리트



↑ 한국 철도산업의 위상을 공유하기 위해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도상 목 침목 분기기의 내구 연한(20년) 경과에 따라 교체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목 침목에 방진 패드와 방진 부츠가 부착되고, 침목 제조 공차로 인해 재시공 작업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기존 방진 침목으로 갱환(일정 주기마다 침목·선로 등을 새로 교환하는 것)할 때 운행선 차량 지연과 함께 고비용의 공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 확보가 가능한 침목 교체 기술의 개발이 절실했다. 삼표레일웨이가 개발한 직결식 체결장치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갱환이 가능한 공법이다.

방진 패드 교체 등 단순한 유지보수

만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 후 체결장치의 조절 기능으로 좌우 및 상하 선형 조정이 가능해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고탄성 체결장치로 접촉부가 필요 없는 분기 기용 최적 시스템이며, 급속 시공 공법과 함께 초고강도 케미컬 사용으로 장기 내구성과 우수한 결합력을 갖췄다. 직결식 체결장치의 개발로 목 침목 분기기의 침목 부식으로 인한 체결구 안전성 저하와 선형 틀림, 그리고 20년 주기의 고비용 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시아 대표 철도산업 전시회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철도 관련 전문 전시회로,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 전시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철도산업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외 부문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오스트리아 국가관이 꾸며져 오스트리아 철도 기술을 선보였다. CRRC(중국중차) 핵심 계열사인 CRRC 주저우 일렉트릭, 지능형 운행 솔루션 및 제반 서비스에 특화된 독일의 호이트 터보(Voith Turbo) 등의 해외 기업도 참가했다. 그 밖에 독일의 도이치반, 인도네시아 교통부, 일본 히타치를 비롯한 해외 소싱 바이어들도 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 발굴을 위해 이번 산업전을 찾았다.

철도 관련 미래 신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은 철도산업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준비한 '철도 형식승인 제도 및 표준규격 설명회' 및 '대한민국 트램의 부활' 등의 세미나는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와 관련한 '동아시아 철도 토크콘서트'도 주목을 받았다.

정인철 삼표레일웨이(주) 대표이사 인터뷰 “철도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창출할 것”

산업전 참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삼표레일웨이 대표이사로서는 이번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산업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내외 철도업계에 삼표레일웨이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철도업체를 압축적으로 방문해서 정보를 얻거나 교류할 수 있고,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할 수도 있어서 사업 전략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각계 기관장 현업 및 해외 관계자와 개막식 환영 오찬을 통해 교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산업전은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준비됐는지요? 삼표레일웨이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사업 성장 단계 및 전략에 따라 시기별로 중점을 둔 사항이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당시 주력상품인 노스가동 분기기를 실물 전시했고, 2005년에는 당시 제품의 제작 과정과 실제 철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대형 디오라마를 설치했습니다. 2011년에는 고속 분기기, 2013년에는 PSTS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실물 전시보다는 사업 섹터별로 동영상, 모형, 패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삼표레일웨이 부스의 주요 콘



셉트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철도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기업의 위상과 노력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그동안 개발해 온 신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전 현장에서 삼표레일웨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궤도 설계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한국형 고속 분기기 등의 신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4일간 부스에 상주하면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신제품을 설명하며 관련 기술 정보 등을 교류했습니다. 당사 부스엔 500여 명이 참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후 상담까지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표레일웨이 주력상품 중 하나인 PSTS 시공 동영상에 저장된 USB 메모리를 기념품

으로 제공했는데,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삼표레일웨이가 이번 산업전에 참가한 것이 보도되어,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 부문에 대한 계획과 삼표 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삼표레일웨이에 몸담은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더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당사는 국내 철도궤도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철도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단 생존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 역량과 강점을 잘 살리고, 외부의 도전과 기회를 잘 극복·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표레일웨이 공사 현장과 공장, 연구소 그리고 본사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뚝뚝 뭉쳐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역사를 써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삼표에 합류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표의 일원으로서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천군 학생들과 함께한 '삼표와 GREEN 지구' 환경과 예술을 배우다

다양한 체험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삼표가 나섰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연천 지역 학생들과 함께한 '삼표와 GREEN 지구' 행사를 소개한다.



더욱 탄탄해진 체험 프로그램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지질공원에 이 지역 학생과 가족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삼표그룹이 연천군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환경예술 체험 활동인 '제3회 삼표와 그린(GREEN) 지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본 행사에는 김광

철 연천군수와 김대수 (주)에스피네이처 대표이사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작년에는 평강식물원에서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완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식물원을 둘러보며 환경과 보존에 대해 알아보는 미술 환경

캠프가 진행됐고, 올해는 기존의 업사이클링 체험에 연천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탄강 지질공원 답사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김대수 대표이사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김대수 대표이사는 "연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3년 만에 이 행사가 삼표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사가 연천 지역 꿈나무들이 환경 교육과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삼표그룹이 연천군과 함께 마련한 환경예술 체험 활동에 참가한 학생과 가족들.
- ↓ 행사를 후원한 김대수 대표이사가 학생들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한탄강변의 '백의리층'은 지질학적 가치가 큰, 아직 암석화되지 않은 퇴적층이다.



↑ 학생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인 한탄강 지질공원을 답사하는 김대수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광철 연천군수(왼쪽에서 세 번째).

호기심 가득했던 한탄강 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입니다. 한반도가 생성되던 시기의 흔적들이 잘 보존돼 있죠.” 본격적인 체험의 시작은 연천군 문화복지국 지질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주요 체험지는 한탄강을 따라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542호 '아우라지 베개용암'과 '백의리층'이었다.

베개용암은 용암이 차가운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을 때 표면이 둥근 베개 모양처럼 굳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탄강의 베개용암은 신생대 중기 무렵에 생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개용암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생성되는데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내륙 강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희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용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은 눈망울을 빛내며 커다란 돌베개들을 구경했다.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백의리층이었다. 20~30m 길이로 펼쳐진 현무암 주상절

리 절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의리층은 아직 암석화되지 않은 퇴적층을 가리킨다.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한탄강변에서 발견되어 통상 백의리층이라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미고결 퇴적층'이다.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관찰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해설사는 “백의리층에 포함된 자갈들을 자세히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한탄강에 흐르던 물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가족들은 자신의 고장에 이런 명소와 역사가 있다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김두호(연천초 5) 학생은 “교과서로 배울 때는 어려웠는데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보니깐 이해하기 쉬웠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참가자들도 내 고장 명소들의 역사에 대해 알게 돼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날씨 또한 화창해 두 시간의 체험 내내 모두가 자연을 만끽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Info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은

미적 가치, 과학적 중요성 및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 중 하나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며 4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2018년 기준으로 37개 나라에 137개

이상의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제주도 전체,

2017년에는 경북 청송군, 2018년에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지정되었다.

삼표그룹은 2019년에 연천군의 한탄강

지질공원이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페타이어를 이용해 화단을 만들고 있는 2조 학생들.



↑ 1조 학생들이 만든 '드림로드 조형물'은 한탄강 지질공원 C에 장난감을 장식했다.

재활용 쓰레기에서 피어난 예술

오후에는 한탄강댐 물문화관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환경예술 체험 활동이 3개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가족들은 조별로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한 '드림로드 조형물' 제작, '타이어 화단' 꾸미기, '병 조명' 만들기 활동 시간을 가졌다.

드림로드 조형물은 한탄강 지질공원의 C 조형물에 연천 지역 어린이집에서 수집된 폐장난감을 덧붙여 만들었다. 어린이집 장난감답게 알록달록 예쁜 색상들로 가득했다. 완성된 드림로드의 모습은 산뜻하고 귀여웠다. 오늘의 활동이 아니었으면 모두 쓰레기장으로 갔을 장난감들은 한데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 학생들은 드림로드 조형물에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의 자연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담았다.

두 번째 조는 페타이어를 이용해 화단을 만들었다. 제 기능을 마치고 버려진 타이어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의 만남은 이색적이었다. 일반적인 검은색 타이어 이외

에 황금색, 하얀색으로 칠해진 타이어도 준비되어 조금이나마 단조로움을 덜었다. 쓰임을 다한 물건이라도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쓰임이 있다. 타이어 화단에는 '헛것의 새로운 활용과 새 생명의 조화'라는 의미가 담겼다.

실제로 한국에서만 한 해 약 3000만 개,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억 개의 페타이어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소각이나 매립 과정을 거치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어른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하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준다.'

마지막 조는 은은하게 방 안을 빛내 줄 병 조명을 만들었다. 버려진 유리병과 자투리 천으로 멋진 조명이 재탄생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유리병 곁면에 알록달록 다양한 색과 문양의 자투리 천을 붙이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세상에 하

나뿐인 나만의 조명이 금방 탄생한다. 병 조명 만들기는 이날 진행한 세 가지 업사이클링 활동 중 가장 실생활과 밀접해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이금혜(은대초 4) 학생은 "버려졌던 쓰레기들이 예쁜 예술 작품으로 바뀌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 배운 걸 계속 생각하며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요"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40%대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은 80%에 달한다. 그러한 배경에서 삼포그룹은 이 같은 환경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 예술 교육과 환경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삼포그룹 사회공헌 관계자는 "더 많은 학생이 환경과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작된 작품들은 한탄강 지질공원에 전시될 예정으로, 참여 학생을 비롯한 모두가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이 덕에 이 행사는 앞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5**

Spotlight

(주)삼표시멘트 생산기획팀 혁신사무국

목표는 '품질 1등, 환경 1등, 안전 1등'

2018년 삼표시멘트 삼척 본사에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했다. 기존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사무국이 혁신사무국으로 거듭난 것이다. 더 나은 공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분임조 활동의 장점은 취하고 한계는 보완해 출범된 조직이다. 새로움의 기초를 쌓고 있는 혁신사무국의 내일이 기대된다.



생산기획팀을 총지휘하는 배종기 상무는
“분임조들이 점진적으로 문제에 접근해나가는 노력이
보이며,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등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

부서명이 독특한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김상규 팀장 혁신사무국은 혁신활동 추진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며 현장 진단을 주관합니다. 그 밖에도 경진대회, 제안 심사, 혁신활동 포상, 대외 인증, 표준화 등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도와 외주공사 관리도 저희 업무가 됩니다.

김상진 대리 기존에도 환경 개선 분임조 활동이 있었습니만, 혁신사무국은 전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혁신활동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혁신활동 프로세스는 그린(Green) 라운드 3~5년, 트러블 프리(Trouble Free) 라운드 1년, 프로세스(Process) 라운드 1년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김상규 현재 그린 라운드 단계인데 리크(Leak) 제로를 목표로 한 설비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된 환경이라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설비 오염과 먼지 비산,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속출하거든요. 트러블 프리 라운드는 실질적 설비 고장률을 저감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프로세스 라운드는 혁신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목표입니다. 저희 업무는 단순히 '계속·반복되는 활동'이 아니라 목표 로드맵에 따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입니다.

혁신사무국의 출범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김상진 시멘트 공장은 비산 먼지를 비롯한

오염 발생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염을 줄이고 발생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공장 설립부터 계속돼 왔지만, 일부가 아닌 전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 차원 더 높은 도약과 발전을 위해 혁신사무국이 구성됐죠.

김상규 그렇습니다. 환경 개선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1997년 TPM이라는 전사적 자주보전 활동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유의미한 환경 개선 활동이었죠.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방향도 폭넓어졌죠. 그래서 2016년 혁신팀

이 발족했고, 2017년 컨설팅을 통해 보다 면밀한 업무 및 목표 설계를 거쳐, 2018년 의식개혁 교육과 함께 혁신활동 운영안을 수립하면서 혁신사무국이 출범했습니다.

김상진 원래 없던 일을 하기 위해 새롭게 태동했다기보다는 기존의 팀이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혁신을 위해 팀부터 혁신한 거죠.

환경 개선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백남원 주임 3K 프리히터 상부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 작업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력을 전달하는 롤러 스탠더드 체인 설비는 마모 등 파손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오일이 공급돼야 합니다. 다만 체인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던 탓에 먼지가 많이 들러붙고, 비를 맞으면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곤 했죠. 생산·보전 분임조와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으로 공리하고 협의한 끝에 일부 구조를 변경하고 철제 커버를 제작해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 오염원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최용순 주임 6K 클링커 출구 비산 문제를 해결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소성로 내부 압력이 높다 보니 출구의 틈으로 미세 클링커가 비산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공장이 1년 365일 풀 가동되니 몇 주만 지나도 많은 먼지가 쌓이게 되겠죠? 저희는 일단 누출되는 클링커의 비산 범위와 각도를 면밀히 측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크기의 호퍼형 슈트를 설치했고, 그렇게 포집한 클링커를 자동으로 이송하는 드래그 체인까지 연결했습니다. 애초의 주안점인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인력과 장비 소요를 줄여 원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동시에 버려지던 클링커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산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인력과 장비 소요를 줄여 원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동시에 버려지던 클링커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생산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 설비시멘트 생산기획팀 혁신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도구는 소통이다.
2 미세 클링커가 오랜 시간 쌓인 모습.
3, 4 누출되는 클링커를 포집하는 호퍼형 슈트를 설치하고 이송 장치까지 연결해 환경 개선, 비용 절감, 생산량 증대라는 일석삼조의 개선을 이루었다.

김상진 앞에서 언급한 3K, 6K의 'K'는 킬른(Kiln)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석회석을 가열해 클링커(Clinker)를 만들기 위한 고온 가마입니다. 클링커는 시멘트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이자 주원료입니다.

개선 여부 판단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백남원 생산성과 효율 개선, 환경오염 방지 등 여러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필수적인 개선 대상입니다.

최용순 고소(高所)와 고온이라는 위험 요소들이 동시에 산재하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시멘트 공장은 사실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클링커를 생산하기 위해 킬른 소성 공정에서 석회석 돌을 녹여야 하니 고온이 필요하죠. 대략 1450℃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대형 설비가 많아 사고가 나면 중대 재해가 될 가능성 또한 큼니다.

현장·부서의 참여도 활발하나요?

김상규 그럼요. 혁신사무국의 목표가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포상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김상진 분임조 활동 시 구역별 불합리 요소 및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테마뱅크에 등록해 각각의 사항을 검토하고 전기·기계·보전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맞춤형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제안 제도를 활용해 포상하면서 분임조의 적극적인 의견 도출 및 설비에 대해 관심과 안목을 넓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남원 공장 전체적으로 현재 26개의 분임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 정돈 위주의 2S활동(세리세돈 줄임말, 일본어 'せいり せいとん'에서 유래)을 주로 하는 생산분임조와



The
Bridge

삼표시멘트 생산기획팀 혁신사무국의 면면



김상규
팀장

“현장과 사무실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김상진
대리

“삼표시멘트가 ‘품질 1등,
환경 1등, 안전 1등’ 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진!”



백남원
주임

“혁신을 거듭하며 인류 문명이
발전해왔듯 삼표의 혁신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최용순
주임

“시멘트가 결합재인 것처럼
혁신사무국이 단단한 삼표시멘트를
만듭니다.”

불합리 개선을 추진하는 자원분임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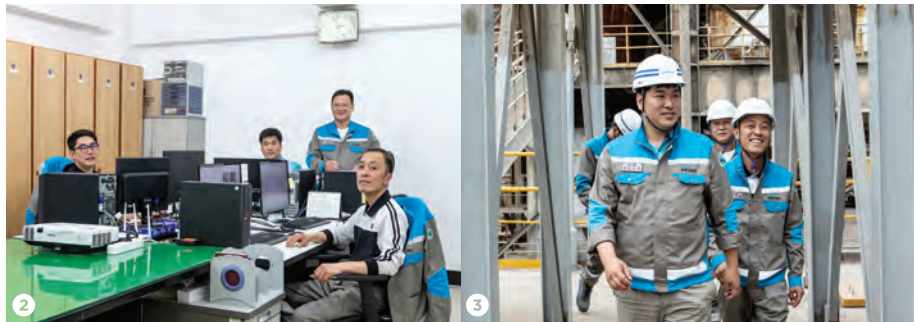
최용준 사무실 벽에 현황표를 붙여놓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쪽 벽에 붙여놓은 현황표 왼쪽은 분임조 리스트입니다. 가운데는 테마뱅크, 즉 분임조별로 제안한 불합리 개선 리스트입니다. 저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현장 확인 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선을 마친 결과는 오른쪽에 정리돼 있죠.

백남원 좀 많죠? 저게 4~6월 테마뱅크인데, 대략 260~270건쯤 됩니다.

김상진 참고로, 원가를 만들고 고치는 등의 개선 작업 자체가 주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부문의 엔지니어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해당 분임조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 개선을 추진하죠. 달리 표현하면 혁신사무국은 현장부서를 지원하고 분임조를 돕는 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겠군요.

김상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혁신사무국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현장 출신의 최고참 엔지니어 영입이었습니다. 기계는 백남원 주임, 전기는 최용준 주임이죠. 두 분의 엔지니어는 소통의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공장을 사람으로 빗대면 현장 직원들이 척추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직과 사무직의 괴리감이라는 게 존재하곤 했는데요, 혁신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양쪽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 주임과 최 주임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죠. 사람과 사람, 부서와 부서 간의 가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즉 분임조원과 설비 간의 가교이기도 해요. 때로는 완충 역할도 하죠.



1 포틀랜드 시멘트와 클링커를 합쳐 연간 2000만 톤 가까이 생산하는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2 1992년에 입사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남원·최용준 주임은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훨씬 더 힘들다고 말한다. **3** 최고참 엔지니어인 그들은 소통의 가교이자 개선의 중추다.

백남원 저희야 뭐, 자원 역할일 뿐인데요, 어려운 건 결국 현장이죠. 통상 현장분임조가 3개월 단위로 테마를 잡아서 2S활동을 추진하면서 불합리 개선 활동을 기계·전기 부문의 자원분임조와 함께 아이디어를 창출해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외부 업체에 맡겨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외주를 맡기기도 합니다. 저와 최 주임이 이 공장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임조에 '이러이러한 건 해드리겠으니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 현장분임조가 환경 개선을 위한 1차적인 담당자라면 저희는 2차적인 지원 부서죠.

혁신사무국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김상진 앞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분임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에 앞장선다고나 할까요? 공장 환경 개선은 단순한 정돈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과 생산성, 업무 효율성 향상까지 이어

집니다. 이처럼 환경이 좋아지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가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삼표그룹의 모토인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와 같은 맥락이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계속 발전해나가다 보면 탄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규 김 대리가 미래를 얘기했으니 저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현장과 사무실이 섞이지 않고 유리된 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되어 한데 섞인 느낌이랄까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고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효율 증진 및 안전 제고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삼표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모두 혁신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위치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불합리한 것이 보이는 그 순간 메모하고 동료들과 공유하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숙해집니다. **5**

‘위라벨’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업무 효율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표그룹은 '워크 스마트'를 통해 조직의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개인의 워라밸 또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임직원의 목소리가 토대 된 캠페인

삼표그룹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삼표인의 여유 있는 삶은 보장하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워크 스마트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화했다. '조직문화 개선 설문'을 통해 임직원들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시간 낭비(Time Loss)'다. 즉 임직원은 개인과 회사의 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가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 낭비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잦은 회의 및 회의 자료를 과다 작성하는 문제, 보고가 빈번하고 양으로 승부하는 보고서 작성 문화를 꼽았다.

두 번째로는 비효율적 업무 처리를

언급했다. 상사의 불명확하고 단편적인 일방
통행식 업무지시와, 이해하지 못한 지시에
대해 직원이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문제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은 '낮은 업무 몰입도'였다. 잦은 보고 및 회의 등으로 본인 업무에 몰입할 수 없는 점, 일부 과도한 회식(음주) 문화로 인해 다음 날 업무 몰입에 방해되는 점 등을 개선이 필요한 요소로 언급했다.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삼표그룹은 다음의 네 가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워크스마트를 실현하려고 한다.

저효율 회의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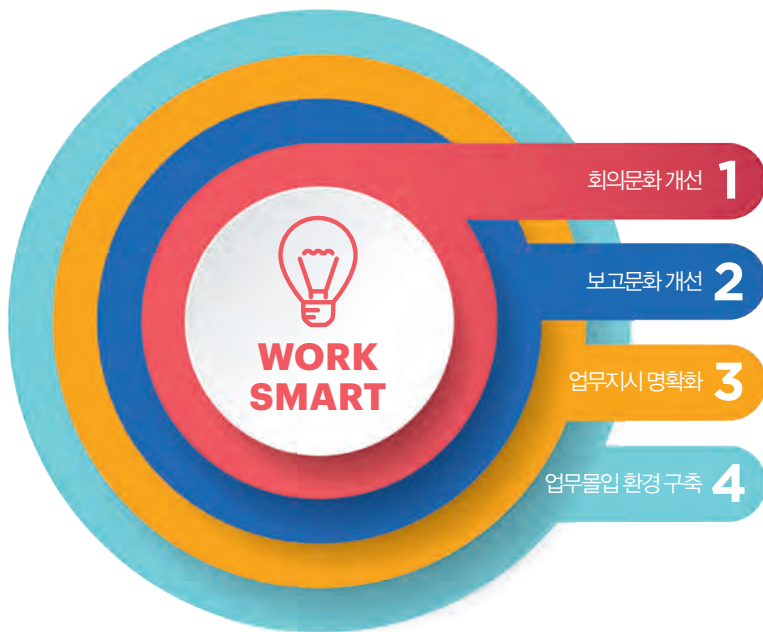
무분별한 회의는 업무의 흐름을 끊고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서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1-1 원칙’을 도입했다. 3개

의 1은 '회의자료 및 의제를 1일 전 공유' 회의 시간은 최대 1시간 이내 '회의 종료 1일 이내 회의록 공유'를 의미한다. 미리 생각할 시간을 갖고 회의를 준비해 시간을 단축하며 모두가 빠르게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는 1주에 2회 이내로 열고, 필요한 인원만 참석해 직급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로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불필요한 보고문화 개선

직장인이자라면 문서 보고를 할 때 내용보다는 형식이나 디자인에 공을 더 들여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문화도 개선 대상이다. 우선 보고서 작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여 상



사가 미리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이해 간극을 수시로 조정한다. 또한 보고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간단하거나 사소한 안건은 이메일 또는 구두 보고 등 약속 보고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나아가 PPT(파워포인트) 보고를 최소화하여 형식이 아닌 내용에 치중한 보고 문화를 형성하려고 한다. 과도한 꾸미기가 아닌, 보고 내용 및 근거 등에 집중하기 위해 워드 또는 엑셀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을 권장하고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만 PPT를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능률을 높이는 업무지시 명확화

대부분의 업무 진행은 업무지시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 부여자가 올바르게 지

“
먼저 업무 부여자는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의 배경과 목적,
왜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업무 수행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를 내려야 일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따라서 워크 스마트를 위해서는 업무 부여자와 업무 수행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먼저 업무 부여자는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의 배경과 목적, 왜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업무 수행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업무 수행자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면서 모든 답변을 해준 후 지시를 마무리해야 한다. 업무 수행자는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항상 질문을 통해 의도를 확인한 후 일을 시작하는 노력이 워크 스마트의 첫걸음이다.

업무 골든타임을 위한 몰입 환경 구축

출근부터 퇴근 전까지 모든 시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집중 근무제'를 도입해 본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은 자리 이동과 집담, 휴먼 등의 개인 용무를 금지하는 동시에 회의, 전화 통화, 메신저 사용도 자제하며 최고의 업무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타이트한 두 시간이 느슨한 다섯 시간보다 나을 수 있다.

건전한 화식, 음주문화도 워크 스마트의 일부분이다. 화식 날씨는 최소 1주일 전에 공지하고 1차만, 1개 종류의 술로, 9시까지 귀가하는 '119 운동도 삼표인의 워라벨을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다양한 개선 방안과 환경 구축을 통해 삼표그룹은 똑똑하게 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민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워크 스마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9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환자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찬희 과장의 미소가
봄날의 햇살만큼이나
싱그럽다.

13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지킨 삼표인 “새 생명 선물해 기뻐요”

“13년 만에 얻은 고귀한 기회. 딸과 동갑인 환우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백혈병 환우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전찬희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생산팀 과장의 소감이다.

누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한 선행’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 5월 2일 오후, 조혈모세포 기증 2주 가량 앞둔 전찬희 과장을 종로구 본사 근처에서 만났다. 골수 공여(5월 21일)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자기 관리에 한창이었다. 전 과장은 13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고 올해 4월 유전자(DNA)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유전자 일치 확률이 낮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인 저도
할 수 있는 쉬운 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13년 만에 기증이 성사된 데다 그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우가 딸아이와 동갑이라고 해서 더욱 몽클하게 다가왔다(기증자와 환자는 직접 만날 수 없으며 서로의 연락처 등 상세한 신상도 알 수 없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암 4기에 해당)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쉽지 않다. 유전

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기 일치할 확률조차 5%에 불과하다. 형제자매 간 유전자기 같을 가능성은 좀 더 높아 25%지만, 최근 한 자녀 가정의 확산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가족 간 유전자기 일치하지 않으면 환자는 기증자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환자와 가족은 이때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한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 유전자기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로 매우 희박하다. 한시가 급한 환자와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작은 가능성에 매달린다.

전 과정이 기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다. 송고한 뜻을 가져서라기 보다는, 그의 표현대로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서’ 실천에 옮겼다고. 전 과정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인 저도 할 수 있는 쉬운 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기증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전 과정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과정 중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경우다. 헌혈과 별도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헌혈 장소에 찾아가 신청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5mL 정도만 채혈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기증 희망자 등록이 가능하다(Q&A 참조). 기증 희망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환자가 있으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연락해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유전자 상제검사, 건강검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고통스럽다’는 편견 사라져야
골수 기증이 확정되면 3일 정도 입원해서 측



↑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모습.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이다.

Q&A

조혈모세포 기증

◎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희망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기증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한미음향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접수한다.

◎ **아프지는 않나?**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말초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헌혈할 때 정도의 통증을 겪을 뿐이다.

◎ **조혈모세포 기증 후 언제부터 학교나 직장**

복귀할 수 있나? 통증이나 불쾌감 등이 심하지

않으면 기증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일주일 정도는 채취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는 게 좋다.

◎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환자가 만날 수 있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와

기증자 간의 만남, 실명·연락처 교환이 금지된다.

선원의 기증이 아닌 금전 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기증받은 환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감사 편지와 소정의

선물 정도는 전달할 수 있다.

진제를 투여 받으며 조혈모세포 수치를 높인 뒤 채취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며칠 휴가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주말을 끼면 최소 1일의 휴가로도 가능하다). 채취 후 퇴원하면 곧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수치는 한 달 안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기증 후 장기 후유증에 시달린 사례는 없다.

물론 기증 의사와는 별도로 희망자의 건강 문제나 주변의 만류 등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전 과정의 경우 기증을 결정했을 때 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뜻을 존중하고 격려해줘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그는 “딸과 동갑인 환우에게 새 생명을 준 저를 존경한다며 아내가 보약(?)을 지어준다고 약속했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혈액암 환자가 고통스럽게 골수검사를 받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기증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졌다. 사실은 헌혈을 할 때 정도의 가벼운 통증뿐이다. 조혈모세포 채취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헌혈처럼 팔 혈관을 통해 이뤄진다.

전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선행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등록한 지 13년 만에 기증을 하게 된 제 경우만 봐도 환자 입장에서 유전자기 일치하는 기증자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골수 기증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사라져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행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라고 뜻을 전했다. **9**

골프의 계절을 맞이한 삼표그룹 골프 동호회 날씨조차바꾼 삼표 PGA 선수들의 열정

삼표그룹 골프 동호회가 주최한 '제3회 삼표 PGA 필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축축하게 젖은 푸른 잔디 위로 공을 굴리며 산뜻한 골프 시즌을 맞이했다.



4월 28일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이렇다간 대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을 정도로 많이 내렸다. 예정된 시간에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선수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6시 40분 무렵, 단체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비 내리는 기세가 한풀 꺾여 보슬비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치 삼표그룹 골프 동호회의 열정이 비를 멈춘 듯했다.

싱글벙글 단체사진을 찍은 선수들은 저마다의 각오를 다지며 금강센테리움

CC의 티 박스로 이동했다. 7시 5분. 삼표그룹 골프 동호회 소속의 10개 팀이 웨일즈 코스, 잉글랜드 코스, 스코틀랜드 코스로 나눠 샷건 방식으로 티샷을 하는 것으로 제3회 삼표 PGA 필드대회가 개막했다.

웨일즈 코스를 배정받은 삼표산업 박진우 차장이 눈에 띄었다. 그는 지난 대회 우승자다. 어깨를 풀고 있는 박 차장에게 이번 대회는 어떤 각오로 준비했냐고 물었다. 박 차장은 "크게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습장에 가서 연습한 게 전

부입니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의 스윙은 이상하게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바로 어제 하프마라톤을 뛰어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고 했다. 그래도 우승을 노리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얌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1~2회 때보다 참가 인원이 많아졌다. 각 그룹별로 스크린 골프장 또는 직접 필드에서 예선전을 치렀을 정도다. 다들 의욕도 넘쳤고 욕심도 부렸다. 누군가는 올해 대회를 미리부터 준비하느라



↑ 친목을 다지는 대회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선수들의 표정들.

지난겨울부터 열심히 레슨을 받아가며 참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혼나면서까지 혹독하게 연습했다며 이번 필드대회 수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과연 날씨조차 바뀌버린 열정의 골프 마니아들이다.

잉글랜드 코스 2번 홀(파5, 527m, 핸디캡 5)은 롱기스트 이벤트 홀이다. 상품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가 걸렸다. 올해 롱기스트의 영예는 삼표산업 이건설 부장이 차지했다. 250m를 날려보낸 그는 “평상시보다 더 멀리 나갔다”며 기쁨을 담아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또 다른 이벤트 홀 잉글랜드 코스 3번 홀(파3, 205m, 핸디캡 6)은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홀이다. 삼표산업 오은호 과장이 날린 티샷이 벙커 턱을 맞고 온그린 해서 홀컵 쪽으로 빨려 들어갈 듯 굴러가자 함께 라운딩하던 동료가 자기도 모르게 “홀인원?” 하고 외쳤다. 근방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이며 4cm 남짓한 작은 공을 유심히 바라봤다. 슬금슬금 구르던 공은

아쉽게도 홀컵에서 1.2m를 남기고 멈췄다. 홀인원은 아니지만 오 과장은 니어리스트 이벤트 홀의 주인공이 되었다.

곳은 날씨 탓에 대회가 취소될까 마음 졸였던 것에 대한 반사작용이랄까, 모두들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흥겨운 기분으로 즐겁게 공을 때리고 골렸다. 이렇게 삼표PGA 참가 선수들은 무사히 게임을 마치고 19번 홀로 이동했다. 잠깐. 이 대회는 19번 홀이 있어? 있다마다. 바로 회사가 마련한 오찬이었다.

제3회 삼표PGA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페리오 방식은 골프 게임 중 가장 합리적인 경기 규칙으로 골프 핸디에 영향을 덜 받는 방식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구력을 떠나 오늘 행사가 그룹 간 화합의 장으로 승화돼 의미 있는 대회라고 입을 모았다. 남자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삼표산업 박우열 부장은 “다음 대회는 골프 동호회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외 선수들은 “이번엔 봄 소풍을 다녀온다는 의미로 참석했으니 다음번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 “그동안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대회를 진행했으니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열리는 게 작은 바람이다”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대회가 열린 금강센테리움 CC는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에 자리 잡고 있는 27홀 퍼블릭 코스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유럽형 골프 코스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클럽하우스 또한 영국풍으로 지어졌다. 2008년 개장해 오래되지 않은 골프장이지만 커다란 소나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S**



제3회 삼표PGA 필드대회 수상자

종합 우승	삼표산업 마케팅 전형권 상무
남자부 우승	삼표산업 아산공장 공장장 박우열 부장
여자부 우승	삼표피앤씨 공사수행팀 김정미 과장
니어리스트	삼표산업 토석사업팀 오은호 과장
롱기스트	삼표산업 화성공장 이건설 부장



종합 우승 전형권 상무



남자부 우승 박우열 부장



여자부 우승 김정미 과장

취업취업볼링회 2019 상반기 정기 교류전 친목과 즐거움이라는 핀을 향해

프로급 선수는커녕 전용 장비도 없다. 1점을 더 올리기 위해 아등바등 찌푸리기보다는
한 번 더 웃으며 취업취업 즐기는 아마추어 볼링 동호회는 오늘도 즐겁다.



6월 14일 포항 ABC볼링장에서 쉬엄쉬엄볼링회가 정기 교류전을 가졌다. 총 42명의 회원이 가입한 쉬엄쉬엄볼링회는 사업장 특성 상 지역별 인원이 많지 않아서 포항, 영천, 삼척의 3개 지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기 교류전은 반기에 한 번씩 개최하는 행사로, 3개 지부 회원이 함께 모여 실력을 겨루고 화합하는 시간이다.

이번 정기 교류전에 참석한 24명의 회원은 6명씩 네 팀으로 나누어 최고 점수를 겨루는 경기를 진행했다. 손에 땀을 쥐는 신경전을 펼치며 팽팽하게, 아니 사실은 상대 팀조차 응원하면서 시종일관 즐겁게 공을 굴린 결과 우승은 1조가 차지했다. 6명 총점 825점, 평균 138점이었다.

동호회 회장인 양재훈 상무는 이번 교류전 참석을 위해 영천은 물론 멀리 삼척에서부터 포항까지 찾아온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동호회 총무를 담당하는 에스피네이처 서동욱 차장 또한 “동호회 활동은 직원들이 직장생활에 활력을 찾고 함께 동료애를 다지는 좋은 소통의 장”이라고 말하며 상반기 정기 교류전이 성황리에 치러진 점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다음은 서 총무와의 일문일답.



↑ “우리에게 볼링은 목표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쉬엄쉬엄볼링회는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회다.

🎙️ 쉬엄쉬엄볼링회 미니인터뷰

동호회는 언제 창단했나요? 쉬엄쉬엄볼링회는 2018년 5월에 창단되었습니다.

회원은 몇 명인가요? 6월 현재 42명입니다. 지역별 구성 인원은 포항지부 17명, 영천지부 14명, 삼척지부 11명입니다. 소속 회사별로는 에스피네이처 34명, 삼척이앤씨 5명, 포항항8부두운영 2명, 삼표 1명입니다.

볼링의 장점을 말씀해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볼링장이든 공과 신발을 대여해주니까요.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간단한 운동으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공식대회에 출전했거나 입상한 경험이 있는 회원이 있나요? 쉬엄쉬엄볼링회는 ‘순수한’ 초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볼링 공이나 보호대 등의 장비를 보유한 회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니까요. 하하. 이를 그대로 쉬엄쉬엄 모이면서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경기 후 맛있는 것을 먹으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정기전 외에도 다른 기업이나 지역 볼링회와 교류전을 갖기도 하나요? 저희는 아마추어 사내 동호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정도의 지부별 교류전 외에 동호회 차원에서 외부와의 교류전을 열지는 않습니다.

쉬엄쉬엄볼링회에 가입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동호회 총무인 제게 연락하셔도 되고, 각 지부별 총무(영천 최진희 사원, 삼척 배다현 사원)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볼링 모임을 통해 직원 간 화합을 원하는 삼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류전은 언제 열리나요? 오는 12월에 송년회를 겸해 포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임 장소로 다른 지역도 검토했지만 포항이 영천과 삼척의 중간 지점이어서 최적의 장소로 생각됩니다. 📍



↑ 이번 교류전에서 우승한 1조. (왼쪽에서부터) 서동욱 차장, 이상목 과장, 김병규 대리, 최준형 과장, 이오근 차장, 최진희 사원.

Case Study

3D 프린팅 건축의 오늘과 미래

콘크리트를 쌓아 집을 짓는다

3D 프린터를 뱅튀기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농담이 아니다. 처음엔 그저 3차원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신기했던 3D 프린터를, 이제는 인간보다 큰 규모로 만들어 건축물을 '출력'할 수 있다.



1



1, 2 프랑스 낭트대의 3D 프린팅 건축 현장. 폴리아우레탄 폼을 이중으로 쌓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웠다. 3 2006년 베룩 코시네비스 교수가 논문(Mega-scale fabrication by contour crafting)을 발표하며 제작한 1.5m 길이의 3D 프린팅 콘크리트 구조물.

3D 프린팅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울타리인 건축 그 자체를 맞보기로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건축은 벽을 세워 공간을 규정하는 행위다. 돌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벽을 세우기 시작했던 인류는 19세기 초에 콘크리트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현대화의 길에 접어든다.

이전까지의 벽체가 깎거나(석조) 세워서(목조, 조적조) 구축할 수 있었다면, 콘크리트는 틀을 짜고 재료를 부어 덩어리를 빚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재료였다. 곤죽 상태에서는 유동적이지 않음에 따라 모양을 잡을 수 있고, 굳고 나면 견고해지는 가소성 덕분에 굳이 직각이 아닌 유려한 곡선의 형태도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팅 건축은 콘크리트의 이런 가소성을 활용한다. 곤죽 상태일 때 도면대로 노즐로 쏘아 모양을 잡은 뒤 굳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콘크리트 건축과는 사뭇 다르다. 기존의 콘크리트 건축은 철근과



틀(거푸집)을 갖춰야만 한다. 인장력을 보강해주는 철근으로 내부 골조를 세우고 그 테두리에 틀을 짰 다음 콘크리트를 붓는다. 이에 비해 3D 프린팅 건축은 마치 치약을 짜내듯 콘크리트를 노즐로 배출해 수평으로 한 켠씩 쌓아 벽을 세운다.

굳이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찰흙을 길고 가는 국숫가락처럼 빚어 따리를 틀듯 빙빙 쌓아 올려 연필꽃이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출력하면서 건물의 모양을 잡는 동시에 벽면 내부의 구조적 보강까지 가능하므로, 철근이 필요 없다. 콘크리트 건축의 핵심이자 정수였던 거푸집과 철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므로 결국은 비용인 공가(工期)를 단축할 수 있다.

3D 프린팅 건축의 어제와 오늘

물론 처음부터 3D 프린팅 건축물 출력 및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986년 그 가능성에 대해 첫발을 내딛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3D 프린팅으로 실물 규모보다 작은 모형 구축만이 가능했다.

2006년 미국 남가주대의 베틀 코시 네비스 교수는 처음으로 기존의 3D 프린터와 원리는 같지만 크레인을 활용해 실물 건축 규모의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4년에는 네덜란드의 건축회사 DUS 아키텍트가 암스테르담의 운하변에 플라스틱 주택을 3D 프린팅으로 구축했다.

한편 중국 건축 회사인 원선은 2016년 3D 프린팅으로 열 채의 집을 단 하루 만에 상하이에 구축해 이름을 날렸다. 당시 원선은 폭 10m에 높이 6.6m의 콘크리트 3D 프린터를 써서 만든 주택 한 채당 가격이 지금의 기준으로도 낮은 4800달러라고 주장했다. 잘 다듬어지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결과

물이었지만 속도와 단가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있었다.

같은 해 원선은 두바이에 '미래의 사무실' 건물도 구축했다. 2030년까지 두바이의 건물 가운데 25%를 3D 프린팅 기술로 짓겠다는 세이카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의 선언의 상징이자 방증이었다. 14만 달러(마감비용 제외)를 들여 17일 만에 구축한 작은 건물은 단 한 명의 직원이 출력 과정을 관리 및 검수했다. 이후 일곱 명이 창문 등 기타 건축 요소를 전기공을 포함한 열 명의 전문 인력이 설비를 마무리지었다. '미래의 사무실'은 원래 두바이 미래 재단을 위해 구축되었으나 전시나 워크숍을 포함한 다른 행사에도 쓰일 계획이다.

2017년에는 러시아의 건축업체 아피스 코어가 이동식 3D 프린터 및 건축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38㎡의 집을 구축했다. 아피스 코어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구축 비용이 총 1만150달러라고 밝혔다. 요소별로 살펴보자면 기초 277달러, 벽 1624달러, 지붕과 천장 2434달러, 배선 242달러, 문과 창문 3548달러, 외부 마감 831달러, 내부 마감 1178달러다. 아피스 코어는 주택의 외부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내부에는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의 가재도구까지 설치해 입주가 가능한 주택의 여건을 조성했다.

그런 가운데 실제 거주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주택은 2018년 프랑스에서 등장했다. 낭트대와 시, 주택조합의 합작인 '람다니 가족 주택'이다. 침실 넷이 딸린 집 전체의 벽면을 출력하는 데 고작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폴리우레탄 단열재를 벽체 바깥쪽과 안쪽에 쌓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로 채웠다. 다만 지붕, 창문, 문 등을 더 하는 나머지 공사에 4개월이 걸렸다고.



1 UAE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이 '미래의 사무실' 앞에서 있다. 2, 3, 4 뉴 스토리가 제안하는 보급용 3D 프린팅 주택의 벽체 시공 장면과 그렇게 지어진 집의 외부와 내부. 5, 6 아피스 코어의 건축용 3D 프린터는 로봇 팔 타입이고(왼쪽), 폭이 8.5m에 달하는 아이콘의 벌컨 1는 일반적인 3D 프린터를 크게 확대한 모습이다(오른쪽).

총 건축 비용은 약 22만3000달러로, 5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95㎡ 면적의 주택을 짓는데 통상적인 건축 방식보다 20%의 비용을 절감했다. 낭트대 연구진은 같은 방식으로 파리에 공공주택 18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3D 프린팅은 보급형 주거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의 비영리 단체 뉴 스토리와 건축용 콘크리트 3D 프린터 제조업체 아이콘의 협업이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벽과 문, 창이 달린 주택에서 살지 못한다며 뉴 스토리는 저렴한 3D 프린팅 주택 보급을 사업 목표로 삼는다.

아이콘이 제작한 벌컨 1라는 3D 프린터는 콘크리트를 한 컵씩 출력해 집 한 채의 벽체를 24시간 안에 올릴 수 있으며, 일단 형체를 갖춘 집에는 사람의 손으로 전기며 배관 등 집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설비를 시공해 마무리한다. 왼쪽 사진(2, 3, 4번)과 같은 60㎡ 면적의 견본 주택을 짓는데 든 비용은 1만 달러 안팎이지만 아이콘은 4000달러 선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 스토리는 일단 내구성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속 가

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오스틴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사무실로 활용하는 1단계를 넘겼다. 그리고 올해 3월, 연말 완공을 목표로 엘살바도르에 400채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번 공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3층 규모의 임대 주택 다섯 채를 3D 프린터로 지을 예정이다. 3D 프린터로 구조체를 출력할 경우 굳이 벽이 직각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은 둥근 바위 형태의 곡면으로 주택을 지을 계획이며, 실내에서 벽면을 찍어낸 뒤 현장에서 조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의 건설 3D 프린팅 연구단이 구축 기술을 연구 중이다. 크게 3D 프린팅 구조 설계, 3D 프린팅 용 건설 복합재료, 건축물 3D 프린팅 장비 세 분야를 연구한다. 일단 100㎡ 이하의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시공법과 비교해 공사 기간을 약 60% 단축하고, 압축강도 60메가파스칼(MPa)을 충족하는 콘크리트 재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3D 프린팅 건설 연구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 2017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소형 벤치를 출력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는 가로·세로·높이 10×10×3m의 수직 골조를 출력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100㎡ 이하의 소형 건축물, 말하자면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사용 가능한 건축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연구단의 건축용 3D 프린터는 아피스 코어처럼 로봇 팔 타입이 아니라 아이콘의 벌컨 1처럼 노즐이 움직이며 벽체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뉴 스토리와 아이콘의 협업에서 엿볼 수 있듯, 3D 프린팅 건축은 일단 보급형 공공주택이나 피난처 등을 구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콘크리트로 벽체를 빨리 세우더라도 문을 비롯한 설비나 배관 등의 기타 건축 요소는 인력으로 시공하는 수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벽면 외의 요소까지 동시에 출력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5

삼표인의 '서머 리미티드 에디션' 대방출 신나는 여름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짜릿하게 다가오는 여름휴가. 업무에 몰입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각양각색' 여름휴가를 즐긴 삼표인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정윤식 과장

(주)삼표 대권역물류영업팀 당진물류영업소

어머니 환갑 기념 가족여행으로 보라카이에 갔을 때입니다. 형과 둘이 해변에서 신나게 점프하면서 한 컷!
형제 둘뿐이라 평소엔 서먹한데 저 때는 정신줄(?) 놓고 즐겼네요.



한정협 대리

(주)에스피네이처 영천사업소 영업팀

재작년 여름, 돌쟁이 딸과 함께 오키나와로
여름휴가를 갔을 때입니다.
수영장과 해변, 하늘이 이어진 멋진 풍경을 잊을
수가 없네요. 둘째도 생년 기념으로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혜진 사원
(주)삼표시멘트 원가팀

친구와 함께한 오키나와 여행. 돌이손 꼭 잡고 스쿠버다이빙에 성공했어요. 사우 여러분도 올여름 시원한 바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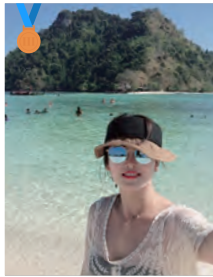
김지수 사원
(주)삼표산업 자원개발2팀

저희 외가는 1년에 한두 번 젊은 또래끼리 모여 여행을 다닙니다. 제주도에서도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왔습니다! 월정리 해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윤동훈 대리
(주)삼표 제도개선팀

여름휴가 때 '올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땅 독도입니다.



이경희 과장
삼표레일웨이(주) 내수영업팀(레일웨이)

태국에서도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간 끄라비. 아직 입소문이나지 않아서 그런지 깨끗하고 좋습니다. 땀 조각을 뿌리면 물고기가 잔뜩 몰려들어요.



황채경 사원
삼표PC엔지니어링 BIM팀

삼풍사(삼표삼총사)의 막내 황채경입니다. 작년 여름휴가 때 쿠알라룸푸르에서 동기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매년 함께하고 싶은 언니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삼풍사 파이팅!



허부영 과장
(주)에스피네이처 경영관리팀

작년 여름 차부모님 모시고 함께한 즐거운 여행. 오키나와 명소인 료우리대교 앞에서 찰칵.



임용주 과장
삼표피앤씨(주) 공사수행팀

출산 전 아내와 단둘이 떠난 보라카이!! 지금은 육아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답니다.



서동욱 차장
(주)에스피네이처 경영관리팀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덕분에 아내와 단둘이 떠나게 된 태국 파티야 여행. 다시 한번 신혼여행을 간 느낌이 물씬. 9

삼표 사우가 추천하는 삼척 관광지 6선 “힐링의 삶을 선사한 제2의 고향 삼척”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사계절 다채로운 축제가
사람들을 반기는 곳. 바로 삼척이다. (주)삼표시멘트
김재호 과장이 삼척의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① 죽서루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척시 성내동의 죽서루는 보물 제213호다. 삼척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 죽서루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 그리고 오십천의 맑은 물과 어우러져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자연암반 위에 세운 기둥도 돋보인다.



② 장미공원

오십천 주변에 있다. 8만5000㎡ 규모에 218종 13만 그루 100만 송이의 장미가 관광객과 시민을 반긴다. 장미 단일 수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더욱 장관을 연출한다. 매년 5월이면 장미축제가 열리며, 공원 안에는 오리배와 수상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물놀이 시설도 마련돼 있다.



③ 장호항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많은 관광객이 카페에 담아가는 반달 모양의 새하얀 해안선이 아름다운 이곳은 깨끗한 백사장이 눈부신 장호해변과 절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백미다. 매년 여름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며, 7~8월에는 어촌체험축제도 열린다.



삼척에 살으리랏다

산과 바다, 동굴과 계곡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삼척에 삼표시멘트 광산개발팀 김재호 과장이 산다. 경북 김천 출신의 그는 2016년 삼척에 등지를 틀었다. 김 과장은 2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시멘트의 원료인 석화석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품질관리와 신규 광산 발굴을 맡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기존의 노천 채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갱내 채굴(지하 채굴) 생산에 들어갔는데, 그 또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질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회사의 각종 배려로 학위 취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넉넉한 미소를 지었다.

딱딱했던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내려온 삼척시에서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았으며 그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2세를 얻는 경사도 맞았다. 아내의 출산 과정에서 삼척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자랑한

다. 시 보건소에서 초음파 검사 쿠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았다. 그 순간 특히 삼척에 오길 잘했다고 느꼈다고.

김 과장이 근무하는 삼표시멘트 또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났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삼척 정월대보름제에서는 흥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위한 자원 재활용 영상 등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삼표시멘트가 생산하는 완제품처럼 디자인한 포장의 팝콘을 무료로 나눠주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것.

그는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삼표시멘트 사원아파트 인근의 장미공원을 거닐며 삶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그의 주요 근무지인 근덕면에 위치한 석화석 광산도 웅장한 규모와 함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제2의 고향에서 힐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김 과장이 추천한 삼척의 명소는 다음과 같다. **5**



④ 해양레일바이크

삼척 해양레일바이크는 공술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5.4km 길이의 복선으로 운행된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깨끗한 해변의 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루미나리에와 다양한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터널이 신비로운 별천지에 온 듯한 느낌도 선사한다. 2014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다.



⑤ 해상케이블카

환상적인 바다 위 여행을 선사한다. 한 번에 32명이 탑승 가능한 케이블카 2대가 중간 첩탈이 없는 874m 구간의 바다 위를 유유히 지나다. 강원 남부권 최대의 해양관광 벨트화 지역으로, 날씨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⑥ 이사부길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푸른 바다를 따라 약 4.6km 구간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드라이브 명소다. 인근에 조성된 소망의탑과 비치조각공원도 꼭 둘러보자. 여름에는 야외무대에서 음악회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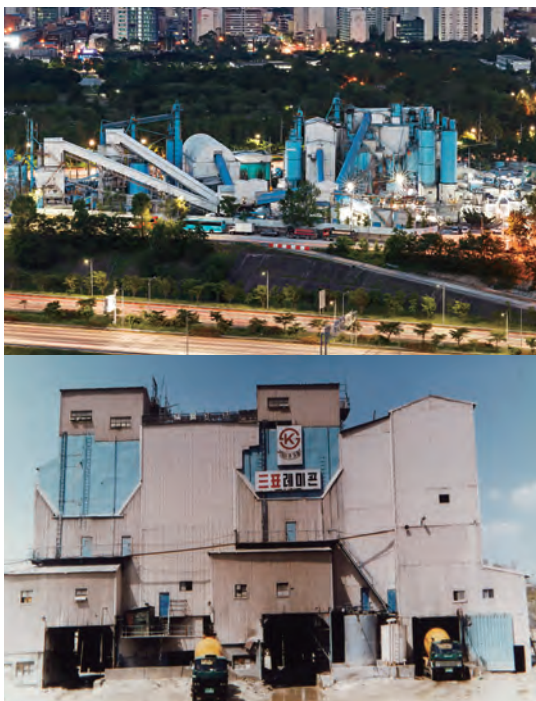
건설 현장 레미콘 ‘사통팔달’ 조달… 대체 부지 못 찾으면 문 닫을 판 (주)삼표산업 성수공장 철거, 관찬은가

1977년에 세워진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정부의 한강권 개발을 지근 거리에서 뒷받침한 건설 자재 공급원이었다.
서울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성수공장 이전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강변북로를 따라 달려 서울 성수동의 서울숲으로 향했다. 교통 체증이 제법 있는 오후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30여 분 만에 도달했다. 독섬과 서울숲을 잇는 작은 다리를 건너서자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푸른 색상의 건물 이 눈에 들어왔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레미콘 생산량을 자랑하는 삼표산업의 성수동 공장이다. 연면적 2만7828㎡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데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공장 특유의 번잡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수공장은 배치 플랜트, 사일로, 저장 빈, 야적장 등 각종 생산 설비는 물론 하루 평균 1200여 대의 믹서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특히 레미콘 공장의 핵심 설비인 ‘배치(배치

플랜트)가 5대(제1공장 3대, 제2공장 2대)나 설치돼 하루 최대 7000㎡의 레미콘 생산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3.3㎡(1평)당 레미콘 1㎡가 소요됨을 감안하면 79.3㎡(24평) 기준 2900여 가구, 112.4㎡(34평) 기준 200여 가구의 작은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레미콘을 성수공장 한곳에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다.



↑ (위) 오늘날 삼표산업 성수공장의 전경. (아래) 1980년대 성수공장의 모습.

‘서울 근대화 상징’ 성수공장

성수공장이 자리한 서울숲 일대 한강변은 과거 6·25 전쟁의 영향으로 토사 침전이 진행돼 하상은 높고 물길은 얇아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됐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뒤덮인 주변도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자리한 지리적 단점 탓에 여름철 잦은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이곳 성수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1968년 정부가 한강 개발을 결정하면서 서울 일대가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삼표산업의 모태인 강원산업은 1969년 한강 개발 사업에 동참하면서 당시 건설부 허가를 받아 성수동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신청했

다. 1971년 정부의 승인을 얻은 강원산업은 성수동에 골재사업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매립 공사에 착수했다. 강 아래 골재를 퍼 올려 수심을 확보한 한편 한강변 주변으로는 모래, 자갈 등을 고르게 채워 토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매년 홍수가 났던 성수동 일대는 물난리에 서자유로워졌고, 도로 등 각종 인프라도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강원산업은 공유수면 매립 지역 중 1만800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2만2000㎡를 성수동 골재 채취 기지(현 성수공장)로 사용했다. 이후 강원산업이 현대제철에 흡수합병 되면서 부지도 함께 넘어갔고, 성수공장은 오늘날까지 현대제철로부터 공장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과거 한강은 골재의 '보물창고'였다. 수백 년 동안 퇴적된 모래와 자갈 매장량이 엄청났고 서울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골재의 운반도 용이했다. 1970년대 서울에선 경제 개발을 통한 근대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당시 강원그룹은 골재 수송업체인 삼강운수를 활용해 성수동 골재 기지에 레미콘 사업장을 짓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1977년 레미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강운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레미콘을 생산해냈고, 이는 서울 전역의 건설 현장으로 팔려나갔다. 성수공장이 서울 근대화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존폐 위기에 직면한 성수공장

서울의 근대화와 명운을 함께했던 성수공장이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과 이전 요구 탓이다. 성수공장 주변으로 소음, 미세먼지, 교통 문제, 매연 등에 대한 민원이 수년간 이어지자, 서울시도 결국 '공장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

치를 내리게 됐다. 삼표는 성수공장 이전 문제를 놓고 서울시 및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시는 성수공장 부지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 서울숲과 연결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레미콘업체가 바라보는 성수공장은 '상징성'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성수공장 이전은 단순히 일개 공장의 철거 문제를 뛰어넘어 서울의 건설 시장에 자칫 차질과 혼선을 유발할 심각한 시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삼표 성수공장의 시간당 레미콘 생산량은 1080㎡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레미콘 공장 생산량의 40%를 웃돈다. 성수공장 폐쇄는 서울 일대의 레미콘 공급 차질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경기 등 외곽에서 서울의 건설 현장으로 레미콘을 들여오기에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레미콘 운송기사의 기피 현상 탓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과 자재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서울시민들로선 더 높은 분양가와 인프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레미콘은 제작 후 1시간 30분 내에 타설해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의 레미콘 공장은 성수공장과 삼표의 풍납공장, 신일CM의 송파공장, 천마콘크리트의 강남공장 등 네 군데가 전부다. 하지만 생산량은 물론 입지 면에서도 성수공장을 대체할 공장이 없고, 서울시 인근에 자리한 경기권 공장들도 마찬가지다.

〈건설경제〉 2019년 6월 5일자 19

“레미콘 공장 부정적 인식 안타까워”—삼표산업 손사의 성수공장장

㉠ 레미콘 품질이 큰 이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삼표산업 서울 성수공장은 국가산업표준(KS)보다 더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SKS)을 제정한 운용하고, 품질 공정 관리자를 전담 배치해 부적합 원료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매월 원재료 샘플을 채취해 품질 시험을 거치고, 공정 부문에서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최신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많은

시기다. 어떠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성수공장은 안전 관련 설비를 갖춘 한편 매월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문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냉방 설비를 갖춘 쉼터와 운동 시설을 운영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상비약과 음료수도 항시 비치해두고 있다.

㉢ 오는 2022년 이전을 앞두고 있다.

1977년 성수공장이 지어진 지 벌써 40여 년이 지났다. 서울 개발 사업이 한창이던 과거에는 수요가 엄청났고 성수공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괜찮았다. 지금은 온도차가 뚜렷하다.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극단적 방향보다는 기업과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할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레미콘 공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독 강한 것 같다. 성수공장 이전은 생존의 문제로 걸려 있다. 공장과 관련된 레미콘 운송업자와 그들의 가정만 따져도 대략 1000여 명의 생계가 이 공장에 달려 있다. 골재,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들과 유지보수 업체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 45년 근속의 '최장수 사원'
홍성원 삼표산업 대표.

홍성원(주)삼표산업 대표이사 인터뷰 “시 레미콘 배합, 고품질 특화 제품 승부”

성장세 둔화된 전통 산업에 첨단 기술을 입혀 고효율을 꾀하고, 특수 콘크리트 분야 고도화 트렌드에 부응해 새 시장 뚫어 수익을 키울 것이라 말하는 자칭 '삼표산업 최장수 사원'을 만났다.

“레미콘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가동해 업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홍성원 삼표산업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레미콘은 급성장하지 않는 전통 산업이지만 차별화 경영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표산업은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과 골재가 주 사업 분야다. 레미콘은 서울 성수동과 풍납동 공장을 비롯한 전국 29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골재는 전국 6개 석산에서 생산하고 있다.

홍 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이 레미콘은 전통 산업이며, 우리나라도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1인당 레미콘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 레미콘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0%, 수도권 공장이 많은 삼표의 경우 6%가량 줄어들 것으로 홍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홍 대표는 “질적 도약을 위해 경영 목표로 꼽았다. 품질이 우수하고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경영 효율을 높이면 시장 성장이 없어도 회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압도적인 품질 ▲특수 콘크리트 경쟁력 강화 ▲권역별 출하 통합 ▲오퍼레이터 무인화 ▲SI 이용 골재 품질관리 등을 '5대 차별화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 중에서도 홍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이다.

고품질 바탕 위에 고도화 기술 접목

"KS 규격을 웃도는 삼표만의 자체 규격(KKS)을 설정하고 품질을 관리해 한국표준협회 한국사용품질 지수(KS-QE) 조사에서 우리 삼표 산업이 레미콘 부문 1위 업체로 7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제가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며 소장들을 만나는데, 삼표의 품질만큼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삼표는 다른 레미콘 회사들과는 달리 골재 사업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홍 대표는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골재를 쓰는 것이 고품질의 우선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현재 국내 업체 중 삼표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특수 콘크리트 분야를 더욱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수 콘크리트로는 강추위에서도 타설과 양생이 가능한 제품, 건축물에 아름다운을 부여하는 컬러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인부들의 수작업이 필요 없는 자가충전 제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건설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도 있다. 서울 노현동의 어반하이프, 서초동 부티크 모나코 건물의 흰색 외벽 장식물이 바로 삼표의 특수 콘크리트가 적용된 대표작인 사례다. 홍 대표는 "정도원 그룹 화장이 늘 강조하는 '새로움'과 '차별화' 철학에 따라 일찌감치 특수 콘크리트 분야에 진출했다"면서 "앞으로는 이 분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정 기술과 업계 위상 모두 업그레이드

홍 대표는 레미콘 제조 현장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공정을 무인화하고 시를 도입하는 일이다. 홍 대표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시멘트와 물, 골재, 혼화재 등 원료 배합비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던 이 과정을 무인화해가고 있다"면서 "골재 품질 검사 또한 시가 적용된 장비를 도입해 트럭 덮개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회사 경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업계 위상도 높여야 한다"면서 "영업사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심한데 콘크리트업계 위상을 높여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의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연간 약 150만㎡를 출하하면서 단일 레미콘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서울시 등과의 약속에 따라 오는 2022년에는 공장을 철수해야 한다. 홍 대표는 "약속은 약속이지만 성수동 공장이 문을 닫으면 서울 시내 공사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미콘은 공장 출발 후 90분이



↑ 레미콘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표산업 성수공장.



질적 도약을 경영 목표로 삼고
▲압도적인 품질 ▲특수 콘크리트 경쟁력 강화
▲권역별 출하 통합 ▲오퍼레이터 무인화
▲SI 이용 골재 품질관리 등을
'5대 차별화 전략'으로 설정했다."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교통 체증을 감안하면 레미콘을 수도권 공장에서 서울로 적시에 실어 나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지난 1974년 삼표의 모태인 강원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부터 근무한 자칭 '최장수 사원'이다. 2011년부터 삼표산업 대표를 맡은 '장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조직 관리는 자신 있다"며 "동료들을 덕(德)으로 대한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서울경제 2019년 6월 10일자 5**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



① — 삼표시멘트 강원도 산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물탈 등 5000만원 기부

(주)삼표시멘트는 4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윤희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문중구 삼표시멘트 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중에는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성군 등 산불 피해지역 건물 보수에 이용될 2000만원 상당의 드라이물탈도 지원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강원도와 오랫동안 함께한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움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피해를 복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자연재해 구호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절기 폭설, 산불·홍수 등 재해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 구호물품 등을 지원한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발족한 ‘위드(WITH)’ 봉사단도 15년째 활동 중이다. 위드는 삼척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장학·복지 지원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연탄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시너지를 위하여 대체연료 현황 브리핑



② — 삼표시멘트

환경부, 삼척공장 방문 대체연료 사용 시설 점검

환경부가 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을 방문했다.

5월 15일 삼척공장 사무동 2층 강의실에서 문종구 삼표시멘트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의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발표를 맡은 배종기 상무는 대체연료에 대한 현황, 중장기 플랜, 대체연료 사용 과 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예를 들며 방문단에 게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합성수지, 타이어 등 대체연료 사용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종기 상무는 법적, 제도적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합성수지 재활용을 권장하는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현황 해설을 마쳤다. 관계자들은 브리핑에 이어 삼표시멘트가 2016년 완공한 신설 합성수지 치장을 방문해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염소 더스트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③ — 삼표산업

콘크리트학회 학술발표대회 참석

(주)삼표산업 연구소는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5월 8~10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개최한 '2019년 봄 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정용 소장, 윤섭 책임, 김강민 선임, 최훈국 선임, 이한용 전임으로 구성된 참가단은 학회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교육 및 토론 시간을 통해 기업과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신규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살펴보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성 있는 연구 테마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습득했다. 나아가 'PST 충전용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안료 및 콘크리트 표면 자연 공법을 활용한 표면 요철 컬러 PC 마감재 개발' '점성 저감을 통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평가' '분체량 증가에 따른 대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블록의 물리적 특성' 등 4건의 논문을 발표하며 삼표 연구소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④ — 삼표산업

제10회 건설인하프마라톤 참가

〈건설경제〉신문이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한 '건설인 하프마라톤'은 건설인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다. (주)삼표산업은 4월 2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부스 1등 및 출전자 25명과 함께 참가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마라톤은 하프(약 21.1km) 및 10km, 5km 코스와 함께 4.5km 걷기 부문으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가한 삼표인들은 기업 홍보 및 건설인과의 친목을 도모했다.



⑤ — 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 2019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장장 워크숍

(주)삼표산업 레미콘사업부는 6월 24~25일 홍성원 대표이사 및 사업부 담당 임원과 본 부팀장, 지역담당, 그리고 전국 공장장들과 함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부팀장과 지역담당들은 2019년 상반기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공장장들은 하반기 수요 분석 및 목표 달성 방안, 하반기 원자재 수급 전망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협의했다.



⑥ — 삼표그룹
삼표봉사동호회 ‘헌혈니눔’ 활동

5월 22일 삼표봉사동호회가 헌혈을 통한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헌혈 봉사에 참가한 이영진 차장과 김영진 차장은 “봉사 활동은 대부분 주말에 진행되어 참가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평일에 진행되어 한결음에 달려왔다”며 평일 봉사 활동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창 대리는 “최근 혈액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뉴스를 듣고 동호회 비회원임에도 헌혈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꼭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동호회장으로 선출된 남윤식 차장은 회원 및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연간 스케줄을 확정 공지하였으며, “그룹 임직원의 열정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다양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영진 차장, 김환수 차장, 김영창 대리, 남윤식 차장.

※헌혈증을 기증하실 분 또는 기부 받고자 하시는 분은 삼표봉사동호회 운영진에 연락하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광호 부장, 남윤식 차장, 김진형 대리, 최재라 선임사원).



⑦ — 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문 2019년 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

(주)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문은 4월 26일 워크숍을 열고 1분기 실적 공유 및 2~4분기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환경자원부문과 스크랩부문이 통합된 후 처음 가진 워크숍으로, 환경자원부문 직원 102명이 참석해 각 담당별로 잘한 점과 미진한 점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의 시간 또한 가졌다. 국만호 대표이사는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분발해 연말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⑧ — 에스피네이처
예산사업소 채석단지 지정, 신고 완료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업계에서의 위상 제고와 골재 부문의 성장 동력이 될 (주)에스피네이처 예산사업소의 채석단지가 지정, 신고 완료되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한 대표이사 및 본사 지원부서의 임직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 예산사업소는 5월 17일 사업소 임직원과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함께 안전지원제를 진행했다.



⑨ — 삼표시멘트

손발이 척척! 화재 상황 조기 진화 성공

4월 7일 자정쯤에 삼척공장 합성수지 신설 치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기 진화되었다. (주)에스피네이처의 김상훈 사원은 연기 발생을 목격하고 (주)삼표시멘트 생산2팀 분임조 정연삼 조장과 에스피네이처 전철규 소장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했고, 조장과 분임조원들이 지체 없이 출동·대응함으로써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침착하게 대응한 이들의 팀워크 덕분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상훈 사원과 한결 분임조원들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과 포상금 20만원, 5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⑩ — 삼표시멘트

영업능력 극대화 취지로 열린 중앙지사 워크숍

(주)삼표시멘트 중앙지사는 6월 15일 중앙지사장 이은혁 상무를 비롯한 15명의 소속 영업팀이 한데 모이는 시간을 갖고 서울·강원·충청·제주 건설 영업팀 간 친목 도모 및 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영업능력 극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행사는 중앙지사 소속의 각 영업팀이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영업 일선에서의 고충을 공감하고 향후 중앙지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중앙지사는 상반기 노고를 치하하며 남은 하반기도 목표 달성을 위해 분투하자는 뜻을 모았다. **5**





삼표인 소식 입사를 환영합니다!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
(주)삼표	대외협력담당	김용민	상무보	2019년 3월 25일
(주)삼표	경영관리담당	서종수	전무	2019년 4월 1일
(주)삼표	전략기획담당	윤호식	상무	2019년 4월 8일
(주)삼표	물류SM팀	채용수	차장	2019년 5월 10일
(주)삼표산업	조업구매팀	류한석	차장	2019년 4월 1일
(주)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이철호	기능	2019년 4월 16일
(주)삼표산업	환경안전팀	선우영진	차장	2019년 5월 1일
(주)삼표산업	회계팀	정영식	과장	2019년 5월 20일
(주)삼표산업	사업개발담당	김지환	상무보	2019년 5월 21일
(주)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전혜미	기능	2019년 6월 1일
(주)삼표산업	서부공장 관리과	윤석산	기능	2019년 6월 10일
(주)삼표산업	RM팀	강희웅	5급	2019년 6월 17일
삼표레일웨이(주)	대표이사	정인철	사장	2019년 5월 1일
삼표피앤씨(주)	공사수행팀	이명기	대리	2019년 5월 1일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생산팀	김상호	기능	2019년 5월 10일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안전팀	신현중	차장	2019년 5월 13일
삼표피앤씨(주)	마케팅2팀(콘크리트)	박연상	부장	2019년 6월 1일
삼표피앤씨(주)	공사수행팀	이진호	부장	2019년 6월 3일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생산팀	전두민	기능	2019년 6월 3일
삼표피앤씨(주)	콘크리트안전팀	박동학	과장	2019년 6월 10일
삼표피앤씨(주)	상주공장품질팀	이도환	과장	2019년 6월 17일
삼표피앤씨지니어링(주)	R&D팀	조현익	5급	2019년 6월 17일
(주)에스피네이처	분체부문	김대수	부사장	2019년 3월 25일
(주)에스피네이처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종희	기능	2019년 4월 8일
(주)에스피네이처	천안Slag공장 생산팀	노해준	기능	2019년 4월 8일
(주)에스피네이처	양주정비	권대호	기능	2019년 4월 15일
(주)에스피네이처	광주공장 관리과	김효진	기능	2019년 5월 3일
(주)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오준기	기능	2019년 5월 13일



사업부별 소식을 보내주세요

그룹 내 뉴스를 보다 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별 단신 뉴스를 모집합니다. 삼표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생생한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신 뉴스가 사보에 게재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홍보팀 이선화 대리(ish8853@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kmm@sampyo.co.kr)

독자퀴즈



㉠ 우리나라 철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회사로, 지난 6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참가해 최고의 철도 기술을 세계에 떨친 철도 전문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p.8 참조)

㉠ ㉡ ㉢ ㉣ ㉤ ㉥



㉢ 우리 그룹은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개인의 워라밸 또한 실현할 수 있도록 ○○○○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업무 개선방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p.22 참조)

㉢ ㉣ ㉤ ㉥

두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에 적어 8월 31일까지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때에는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또는 앞으로 <삼표가 GREEN 세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응모 홍보팀 김미미 사원(kmm@sampyo.co.kr)

자난호 퀴즈 정답

㉠ 역랑

㉢ 에스피네이처

당첨을 축하합니다

(주)삼표 삼표피앤씨SM팀 신현대 과장
삼표피앤씨(주) 청주공장품질관리팀 유선엽 과장
(주)에스피네이처 중기기술팀 설은석 대리
(주)삼표산업 마케팅1팀 박민지 대리
(주)삼표산업 사업기획팀 김경아 사원

삼표가 GREEN 세상

계간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SAMPYO

(주)삼표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02-460-7111